

순천 정원박람회 자원봉사자로 치른다

市, 성공개최 위해 통역·해설사 등 5000명 양성 '맞춤형 봉사'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5000명의 자원봉사자가 동참한다. 순천시는 2013년 열리는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5000명의 자원봉사자를 양성, 투입할

계획이다. 봉사 분야는 200여명은 통역과 정원해설사 등으로 활동하고, 4800여명은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봉사자 모집은 하반기부터 실시하

며, 단계별 교육을 통해 시설별·기능별로 맞춤형 자원 봉사자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대회기간이 184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전문 운영요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

다른 박람회 사례에서도 시민 참여가 박람회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동안 '지구의 정원, 순천만'(Garden of the earth)을 주제로 순천만 일원에서 펼쳐진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1004종, 300만 송이 '장미의 향연'

곡성 내달 10~12일 기차마을서 장미축제

"1004종, 300만 송이의 장미꽃 향기에 취해 보세요." "2011 곡성 장미축제"가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곡성군 오곡면 섬진강 기차마을내 장미공원에서 열린다. 54억원을 들여 지난해 말 완공된 곡성 장미공원은 국내 최대인 4만㎡(1만2000평)에 영국·독일·프랑스에서 최근 육성된 새 품종 장미 1004종 3만7588주가 식재돼 있다. 특히 독일 종묘협회로부터 품질 보증(ADR)을 받은 신품종 172종

가운데 109종이 심어져 있고 보니카·더블 달라이트·엘리나 등 세계 장미회의 명예입상 품종 14종 중 9종도 만날 수 있다. '향기, 사랑 그리고 꿈'이란 주제로 열리는 장미축제에는 형형색색 장미꽃들이 조명과 어울려 아름답게 수놓은 장미공원 야경을 배경으로 '장미빛 사랑 커플 선발' 등 4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이다. 신비한 마술쇼와 7080 통기타 콘서트, 난타공연 등 12개의 문화공연 행사가 펼쳐지고 장미꽃 중

이접기, 장미향 비누만들기, 장미카탈레 만들기 등 7개의 생생한 체험행사가 관람객들을 불러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 친환경 농산물 전시 판매 행사와 곡성 향토음식 및 장미꽃 판매장 운영, 전국 사진촬영 대회 등 부대행사로 눈길을 끈다. 허남석 곡성군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곡성 장미축제는 기차마을의 다양한 관광 상품과 연계돼 '섬진강 기차마을'의 명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여수시 스마트폰으로 화상학습

전국최초 원어민 활용

시민·학생들에 서비스

여수시에서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원어민 화상학습이 실시된다. 여수시는 지난 28일 오림동 진남체육관내 평생학습관에서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2차 사업 개소식을 갖고 3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지난 2008년 1차 사업을 시작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는 내년 박람회에 대비해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번 개소식에는 수강생과 학부모, 원어민 강사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폰 화상학습 시연, 영어로 자기소개하기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 즐겼다. 시는 사이버학습센터 웹 사이트 화면을 기능별, 테마별로 재편성해 모바일 화상학습 환경에 적

합한 동영상 콘텐츠로 개편했다. 특히 여수지역 학생들의 사고육비 절감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원어민을 활용한 사이버 화상학습을 방식을 전격 도입했다. 학생들은 이번 서비스로 스마트폰을 사용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원어민 강사의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12 여수 세계박람회' 대비 중국어 화상학습 과정을 추가 신설했고, 원어민 강사 4명을 5명으로 확대해 400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영어와 중국어를 수강할 수 있다. 공문산 교육지원단장은 "내년 여수박람회를 앞두고 여수시민과 학생 누구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이번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원어민 화상학습 서비스로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높이고 여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곡성 기차마을 민자 유치

휴양·놀이 존 등에 콘도·상가 개발키로

기차와 철도자전거를 테마로 한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 민자유치가 추진된다. 30일 곡성군에 따르면 주차장부지 옆 휴양 존(1만1665㎡)에는 콘도·펜션 등 숙박시설을, 상업 및 놀이 존(3만1313㎡)에는 상가시설과 놀이시설·문화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군은 투자자들에게 전기,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전체투자자 부분 투자로 선택의 폭을 다양화했다. 행정토지는 20년 이내 무상사용이 가능한 BTO(건설-기부채납-운영)방

식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차마을은 10년 전 전라선 개량화 사업으로 폐철도가 된 13km 이용, 증기기차와 철도자전거를 테마로 개발해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왔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 1일부터 '섬진강 기차마을' 입장료를 유료화한 결과 지난 29일까지 6500명이 방문해 1억원을 돌파했다. 군은 입장료 수입을 기차마을 시설 유지와 보수, 청소 등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 재투자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GS칼텍스 초등생 대상 녹색환경 글쓰기대회 성료

GS칼텍스(대표 허동수 회장) 주최의 '제18회 GS칼텍스 녹색환경 글쓰기대회'가 지난 28일 성료됐다. 여수, 순천, 광양 지역 초등학생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는 'Dream of Children' with GS칼텍스를 대회 주제로 선정해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였다.

특히 이날 실업고(여수정보과학고) 출신 첫 골든벨 우승자 (1999년) 김수영씨의 성공 스토리와 아픔과 좌절을 딛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 다큐멘터리가 참가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광양제철 고철모으기 운동에 환경 정화·원가 절감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김준식)는 최근 12일간 각 공장 및 주택단지에서 '철 스크랩(고철) 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다. 광양제철은 이번 기간동안 195t의 스크랩을 모아 쓸모있는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스크랩 구매비용 절감과 주변 환경정화 효과를 거뒀다. 철 스크랩은 지난해 12월 42만 원에서 올 4월 현재 58만원을 웃도는 등 고철가격 급등에 따라 원료비가 증가되는 실정이다. 한편 광양제철소

노경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직원과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직원과 함께' 실천운동에 들어갔다. '직원과 함께' 운동은 ▲3제로(안전제해·설비고장·품질사고) ▲원가절감 ▲지식생산성 향상 ▲외주 파트원사와 동반성장 ▲윤리준수·정보보호 등 5가지 테마를 실천한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4079@**

전 북

전북 혁신도시 토지 소유주들

'NH 일괄이전 위헌' 헌법소원

'재산권 침해'... 어제 청구

전북 혁신도시 토지소유주들이 30일 '정부의 LH일괄매치 결정으로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북도의회 김호서 의장과 유창희 부의장, 김점동 전북변호사회 LH비상대책위원장, 장병원 전북 애양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전북혁신도시내 토지주 10명을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류를 접수했다.<사진>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전북 혁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LH가 분산배치 대신 경남에 일괄매치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23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믿고 따라온 전북도민의

이익과 토지주들의 재산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할 마땅한 권리인데도 '신통사실의 원칙'조차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일괄매치 결정으로 크게 침해당했다"며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진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는 하루빨리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서 도의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 승자 독식없는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를 추진했다"며 "LH 지방이전 절차를 무시한

국도부의 위법성을 가려내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道, 올 첫 추경예산 3100억 원 편성

전북도는 3100여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전북도의 총예산 규모는 예초 4조 479억 원에서 4조 3천62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도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지역경

제 등에 추경예산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개발·SOC(666억 원) ▲사회복지·보건(386억 원) ▲산업진흥·기업지원(294억 원) ▲농림해양수산(235억 원) ▲공공질서·안전(156억 원) 등에 쓰인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문화원, 내달 11일 한문경전 성독대회

정읍문화원은 '제4회 전국 한문경전 성독대회'를 6월 11일 정읍에 있는 전북과학대학에서 개최한다. 한문경전 성독대회는 옛 선비들이 천자문과 사서삼경 등 한문 고전을 소리 내어 읽던 방식을 재현해 평가하는 대회다. 초등부, 중등부, 대학·일반부 참가자들은 전통 한복을 입고 천자문, 소학, 명심보감, 한시, 사서삼경 등을 노래하듯 읽어가게 된다. 문화원은 한문학의 이해를 높이고 전통 선비문화 계승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대회를 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js@**

완주 삼례역 청사 남쪽으로 200m 이전

익산~전주~완주 신리간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라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에 있는 삼례역의 청사가 남쪽으로 200m가량 이전된다. 코레일 전북본부(본부장 최철률)는 삼례읍 후정리 208-3번지 일대에 신축 중인 지상 2층 규모

의 삼례역 신청사가 최근 완공됨에 따라 6월 1일 삼례역을 이곳으로 옮긴 후 업무에 들어간다. 새로 지은 삼례역에는 여성을 위한 샤워방과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됐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군산 시립도서관 식당 민간위탁 운영

군산 시립도서관 식당이 민간에 위탁된다. 군산시는 그동안 시립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던 식당을 도서관 이용자의 증가 및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따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6월초 입찰을 통해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

임대기간은 3년으로 그동안 평일에 종식(백반)만 운영했으나 위탁시에는 토, 일요일 운영은 물론 종식·석식·간식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게 된다. 문의(063-461-1521)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군산 美軍기지 기름유출 사고 축소 급급"

시민단체 민·관 공동조사 촉구

군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26일 발생한 군산 미 공군기지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민·관 합동 공동 조사를 촉구했다.

군산 미공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회원 10여명은 30일 군산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기지의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의혹해소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회원은 "주민의 제보를 받은 군산시가 나서면서 밝혀지기 시작한 이번 사건은 미군의 은폐의혹이 짙어서 방제와 이후 절차가 모두 허술하게 이뤄졌다"면서 "미군측은 한 마디의 사과 없이 사고를 축소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고에 대

한 진실규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군산시는 이번 사고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긴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미군, 군산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 가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미군측은 이날 언론 보도 자

료를 통해 "지난 24일 기지내 발전소 유류탱크에서 디젤연료와 첫 유출된 이후부터 군산시와 합동으로 잔여물을 제거하는 등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시민단체의 민관합동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합구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시, 학생 98명 시정 파수꾼 위촉

김제시가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시정(市政) 참여를 위해 '지평선 시정 파수꾼'제도를 운영한다. 김제시는 지난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평선 시정파수꾼'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시정파수꾼은 중학생 39명·고등학생 59명 등 모두 98명이다. '시정파수꾼'은 학생들이 평소 등·하교 길에서 겪는 불편한 점을 비

롯해 학교주변 안전 저해요인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제보하면 채택된 아이디어에 한해 1건당 자원봉사 1시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시는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등을 적극 수렴해 시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홍은성기자 hnews@**

군산 선유도, 美 그랜드 캐니언처럼..

스릴형 체험시설 '스카이 워크' 추진

군산 선유도에 일명 '스카이 워크(Sky walk)'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0일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해협이 명소화 사업의 하나로 선유도에 '스카이 워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2013년까지 국비 50억과 도·시비 50억원 등 총 100억원을 들여 선유도에 이를 포함한 다양한 체험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스카이 워크'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사진)처럼 아찔한 절벽 등에 투명한 소재로 다리를 연결해 걸어다니는 관광객들이 마치 절벽 위 등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는 스릴형 체험시설이다. 선유도 스카이워크는 선유봉 정상(112m) 허공에 길이 10m,



폭 2~3m의 U자형 강관유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군산시 관계자는 "선유도 스카이워크는 새만금 관광을 활성화하는 상징사업"이라며 "불거리와 즐거거리가 별로 없는 새만금과 인근 고군산군도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구상 중이며 내년에도 일부 예산이 반영되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